

지역 소식통

부안군, 국산 밀 산업 육성

부안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맞춰 밀 산업 기반 구축 계획수립에 나서는데 등 국산 밀 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계획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밀 산업 육성법'에 근거한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이다.

제2의 주곡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소비 확산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군은 밀 산업 육성법 제정에 따라 지난 8월 부안군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완료해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달에 부안군 국산 밀 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해 국산 밀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다. 또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인 한국식품연구원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번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적극 반영해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솔다음 자연농원' 교육 프로그램 '장려상'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20년 농촌교육농장 교육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정읍 '솔다음 자연농원'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촌교육농장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발굴 확산에 농촌교육농장의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체험상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 농장은 전국 9개소로 1차 서류심사와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한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심사내용은 프로그램 완성도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전복에서 유일하게 솔다음 자연농원이 선발됐다. 솔다음 자연농원은 조경 소나무와 야생화를 재배하며 다양한 책 만들기 교육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솔재 생태축 복원 추진

방장산~문수사 일대... 훼손구간 터널형 생태통로 설치 2022년까지 총 50억원 투입... 영산기맥 역사성 회복도

도로 개발로 단절·훼손된 고창 영산기맥(솔재) 생태계 복원이 추진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창군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영산기맥 솔재(방장산~문수사 일대) 구간 생태축 복원·연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영산기맥은 호남정맥(내장산~백암산)에서 갈라져 나와 고창 양고살재·솔재를 지나 영광, 목포 유달산에 이르는 총길이 160km의 전라북도 유일한 기맥(岐脈)이다.

사업은 환경부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 2단계(2019~2023)'에 따라 진행된다.

핵심 복원지로 선정된 영산기맥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자생 동·식물의 이동 등 산림지역 생물다양성 확보와 생물학적 수용능력 강화로 생태계 연결성 회복이 핵심목표다.

영산기맥 솔재(방장산~문수사) 구간은 지방도로 888호선을 만들면서 수년간 끊어져 왔다.

이에 야생동물 로드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등 방장산 문수사 일대를 탐방하는 탐방객 안전도 함께 위협받고 있다.

사업을 위해 고창군은 환경부, 국립생태원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할 계획이다.

이후 2022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국비 35억)을 투입해, 단절·훼손 구간에 터널형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등 고창 솔재 생태축 복원에 나선다.

고창군은 과거의 동·식물 상을 조사·수집하고 복원구역 주변 자생 동·식물 흔적 또는 종자 등을 채집해 주변 산림 생태계와 어우러지도록 생태계 전반에 걸쳐 복원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고창군청 김수동 생태환경 과장은 "영산기맥의 역사성을 되살리고 생물다양성과 연결성 회복뿐 아니라 장성을 지나 고창으로 오는 관문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며 "생태계 복원에 피해가 없는 선에서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디자인 적용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영산기맥 솔재(방장산~문수사 일대) 구간 생태축 복원·연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환경부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 2단계(2019~2023)'에 따라 진행된다.

정읍시, '단풍미락' 브랜드화 팔걸었다

외식업 영업주 아카데미 최종보고회... 메뉴 전수 등 성과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음식 '단풍미락'의 브랜드화·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해 시는 지난 25일 지역 대표 음식점 단풍미락 활성화와 메뉴 전수를 위한 외식업 영업주 아카데미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아카데미 최종보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단풍미락의 수정·보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단풍미락 맛 유지 점검 ▲신규대표음식점 메뉴 전수 ▲대표음식점별 맞춤형 단풍미락 메뉴 개발 ▲단풍미락 도시락 개발 ▲



정읍시는 지난 25일 단풍미락 활성화와 메뉴 전수를 위한 외식업 영업주 아카데미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단풍미락 온라인 판로 구축 등의 성과를 이뤘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육성과 지역 대표 음식 개발을 목

표로 2016년 귀리떡갈비와 생화치묵은 지삼합 2개의 대표 음식을 개발해 선보였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대표음식점은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었으며 이 중 4개소에서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단풍미락 도시락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단풍미락 도시락은 카카오택배 또는 배달 앱을 통해서도 주문 가능하며, 신규 음식점에서 한상차림의 저렴한 가격으로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규대표음식점 추가 선정과 도시락 개발을 통해 단풍미락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해주세요"

정읍시, 가점·포상 휴가 등... 30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시민과 공무원의 대상으로 30일까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받는다.

추천 대상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기타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등이다.

추천 방법은 정읍시 홈페이지에 개설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민추천'에서 실명인증 후 등록하거나 인사혁신처가 운영 중인 '적극행정 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민이 추천한 공무원은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추천한 공무원과 함께 적극행정 실무위원회 평가, 직위 및 시민평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심사·선발할 예정이다.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성과상여금 최고등급과 근무성적평정 가점, 포상 휴가 등의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민추천창구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명을 선발해 성과상여금 최고등급과 근무성적 평점 0.3점을 인센티브로 부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년비 2배이상 늘어

고창군이 올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과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자격요건이 검증된 1만 521농가를 확정해 모두 388억원의 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168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여름철 장마 피해 등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겼다.

경작 규모별로는 0.1~0.5ha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이 46억원(3792농가), 0.5~2ha와 2~6ha 등 구간별로 구분되는 면적 직불금이 322억원(7729농가)이다.

고창군청 배기영 농생명지원과장은 "올해 코로나19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농업피해로 힘든 시기를 겪은 지역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고려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주민설명회

부안 하서면에서는 지난 25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하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하서면 언덕리 일원에 2023년까지 4년간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복합문화센터신축, 가로경관정비, 지역여량강화 등의 단계별 사업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세를 하서면장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면 소재지에 부족한 복지시설 등



부안 하서면에서는 지난 25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하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을 확충하면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